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6월 28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3:1-6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3:15,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3:21입니다. 이 예배를 지속하면 창3:15에 약속된 것이 그 사람의 현장에 나타나 뱀의 머리는 깨어지고 인생은 회복이 되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정복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답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 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정확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로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고는 인생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기도보다 그림이 더 큽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는 안 해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이 될 말씀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창3:15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되어지고 아무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며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답이 됩니다. 때로는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평생의 언약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평생을 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엄히 명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면 인생은 저절로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면 개인 인생이 살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과 가문의 운명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답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 연약한 우리를 보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2) 그의 많은 행하심과 죽으심과 약속의 피를 한 번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허무가 어떠하였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3)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꼼짝을 못하도록 잡혀 있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누가에게 말을 하면 답을 줄까. 어디를 가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정신에 문제가 왔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나 될 일이냐.
4) 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이 나는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주는 아무런 상관없이 웅 - 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보고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보고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이 가을에 죽어도 내년 봄에는 다시 나오지 않냐. 그러나 나는 달라. 죽으면 끝이야. 다시 돌아 오고

말고 하는 일이 내게는 없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답이야.

5) 아무도 도와 줄 수 없고 내게도 답이 없는 운명과 저주,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과 그 은혜를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6) 놀라운 주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일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7) 그리하여 지금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남미 끝까지를 언약으로 잡고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와 함께 이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개벽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8) 주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가장 근접하여 설명한 것이 3직입니다.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이 3직으로 나의 문제에 도전을 하고 이 3직을 증거하여 사람을 건져 보는 것입니다.

9) 이것이 내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복음은 아는 데 현장을 모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복음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10)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성취를 보면 복음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정말 인간에게는 운명이란 것이 있는가. 정말로 귀신은 있는가. 정말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로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인가.

11) 복음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볼 수 있는 질문들이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인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용과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도 중요한 책입니다.

12) 성경 외에는 원죄를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인간의 운명을 말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귀신을 말하고 사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것들의 존재를 말하는 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정신병이나 마약이나 자살 등이 전부 이것들의 역사로 일어난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13) 더 더욱 이것을 죽이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뿐인 것을 말하는 곳은 정말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만큼 예배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4)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행하는 칼이 말씀입니다. 원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다. 오늘도 이 무기를 받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과 모든 산업과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